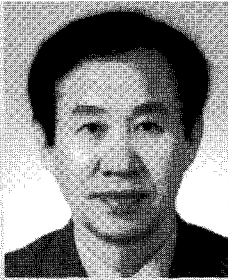


## 기술개발로 세계시장 확대 고객만족 실현에 최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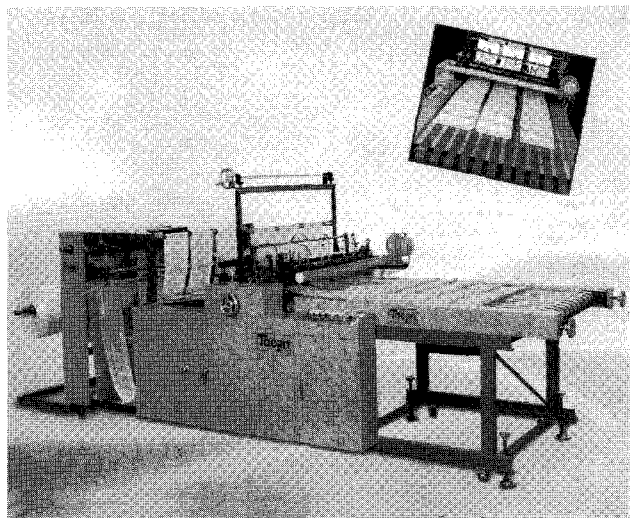


이 광 천  
태진기계(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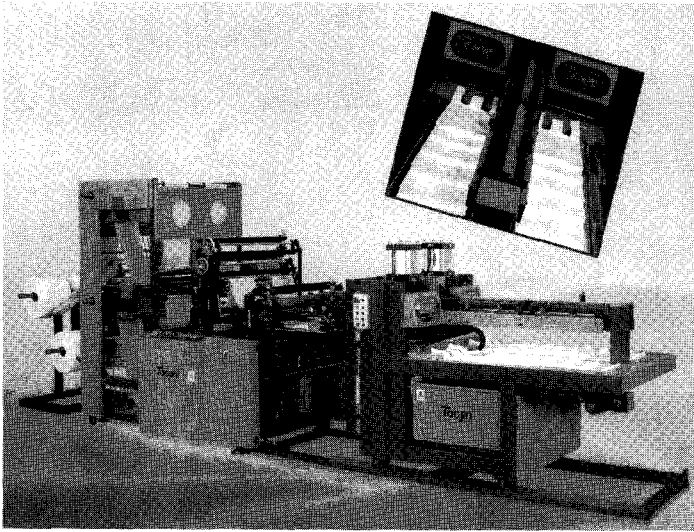
비닐쇼핑백 가공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태진기계(주)(대표이사 이광천)는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기업을 영위하는데 좋을 것이란 판단아래 중소기업에서는 드물게 기대 이상의 성과와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1987년 서울시 성수동에서 태진정밀기계로 시작하여 1993년 1백만불 수출탑 수상, 기업경영 우수 표창(산업자원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착실한 절차를 거쳐 성장하고 있다.

태진기계는 '기술개발, 인화단결, 주인의식'을 사훈으로 내걸고 기술개발 없이는 경쟁력에서 뒤져 기업 경영



▲ 오픈 & 쇼핑백 가공기



▲ 전자동 쇼핑백 제조기계

이 어렵다는 신념으로 기술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을 하고 있다.

싸이드 썰링기의 히팅구조 실용신안, 싸이드 썰링기의 절단장치 실용신안, 비닐백 제대기 특허출원, 비닐백 제대기의 비닐절단 및 적층장치 실용신안 출원, 다단, 다열식 비닐장갑 가공장치 실용신안 출원, 가공물 이송장치 실용신안 출원, 비닐백 의장 심사 등록 출원 등 태진이 기술개발을 통해 이뤄낸 결과들에서도 알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이 미미한 현

상황에서 태진은 매출액 대비 3% 정도를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음도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태진기계는 비닐백가공기, 플렉소인쇄기, 그라비아인쇄기 등 합성수지 가공기계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대형마켓 납품업체, 대형 식품업체 납품업체 등이 주 거래처로 구성되어 있다.

태진기계는 작업환경 개선 및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지 1,000평을 마련, 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했다.

새로 이전한 공장은 40여명

의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생산성도 향상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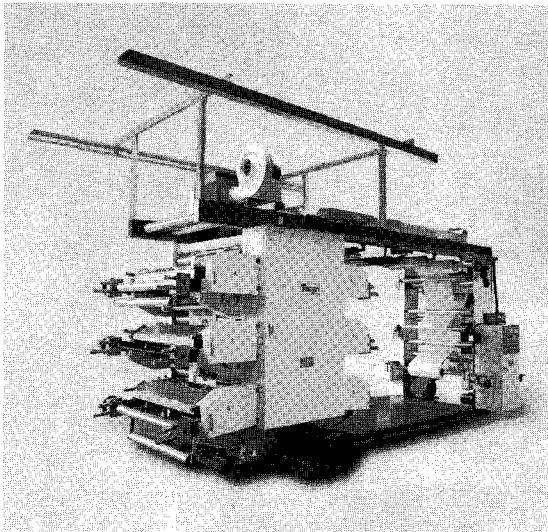
태진은 주로 설계실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개발을 비롯해 유저업체들이 말하는 사용상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유저들 사업장에 맞도록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매년 5~6%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수출에 대한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태진은 멕시코,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크, 싱가포르,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 수출 국가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의 비율은 60:40이다.

이렇게 견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태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는 다른 모든 중소기업들처럼 자금과 기술인력 확보로 유화제품을 가공하는 기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 TaeJin



◀ 플렉소 인쇄기

최근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태진은 회사 자체적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자금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가 잘되고 있다.

또한 자사 제품들에 소요되는 부품들은 표준화시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는 한편 비용 면에서도 상당한 절감을 하고 있다.

최근 태진기계 이광천 사장

의 관심은 더 좋은 작업환경을 만들어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회사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견실한 운영의 틀을 잡아나가는가에 있다.

물론 태진기계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국내외 거래처를 잘 관리만 하여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나은

태진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력 부족과 전문인력의 수급”이라는 이광천 사장은 “정부에서도 행정 편의주의를 버리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만이 동종 업계 및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태진기계 이 사장은 “우리 업계도 하루빨리 제품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와야 된다”고 말했다.

기술개발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으로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태진기계가 세계 우수 합성수지 가공기계의 반열에 오를길 기대한다. ☐